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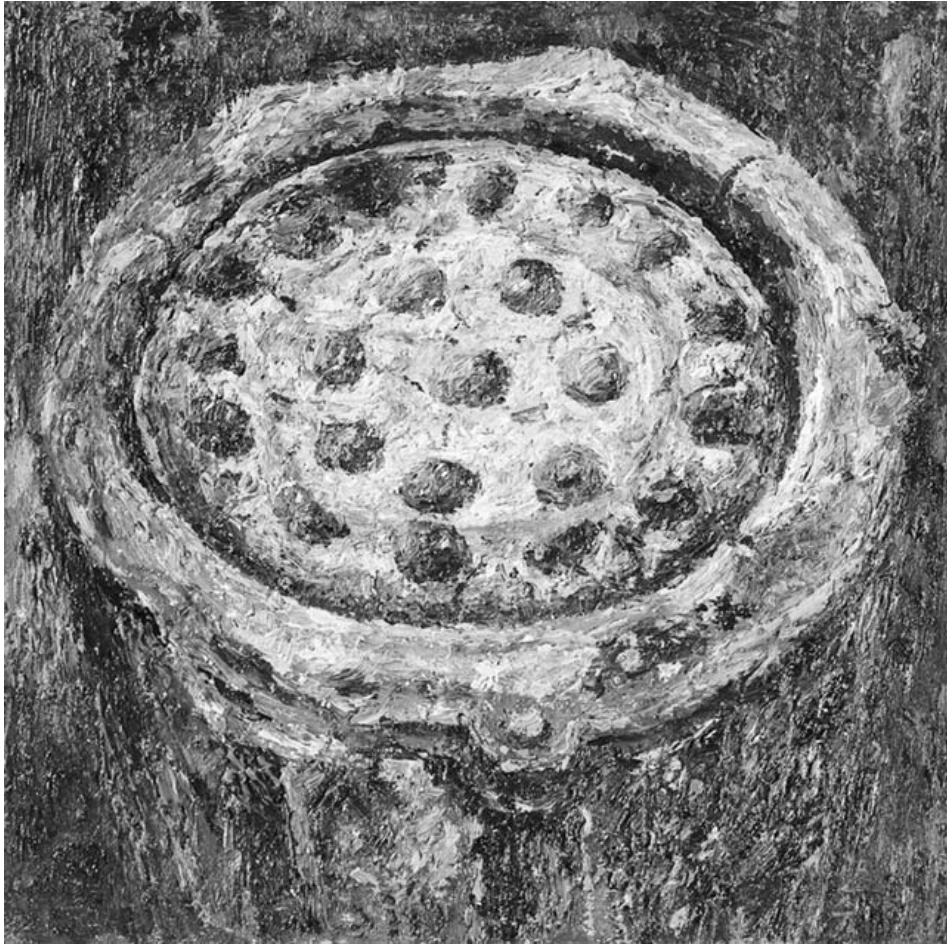
롯데갤러리 광주점 연말 기획전 ‘설한풍정’(雪寒風情)

일상 가까이 따스한 겨울 풍경 만끽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겨울, 누구나 ‘겨울’을 떠올리면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이다.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친 겨울의 풍경을 작품으로 만나보자.

롯데갤러리 광주점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말연시 기획전 ‘설한풍정’(雪寒風情)을 마련한다.

롯데갤러리 겨울기획 ‘설한풍정’은 계절이 자아내는 정취를 다채로운 시각에서 담아본 자리다. 함박눈 내려 더욱 예스러운 허름한 국밥집, 쌓인 눈 단정히 녹아드는 고즈넉한 산사, 칼바람 끝에 매달린 고들고들 시래기, 첫눈을 향한 소녀의 설렘, 무등산의 웅장한 설경과 공사장의 겨울, 그리고 눈 내리는 날의 젊음의 공허까지, 7인의 참여 작가는 삶 가까이에서 바라본 계절의 서정을 작품으로 구현해낸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은 오는 21일부터 겨울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전시 ‘설한풍정’을 연다. 작품은 이관수 작 ‘잔불은 지고 뜨거웁은 남아’ /롯데갤러리 제공

광주 작가 7인 회화·조각 23점 선배

연탄·산사·무등산·공사장 등 재해석

전시에는 고마음, 윤석문, 이관수, 조정태, 조현, 채경남, 최진우 등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7명이 참여해, 계절 ‘겨울’을 소재로 한 회화·조각 작품 23점을 선보인다.

공사장의 겨울 풍경을 담은 고마움은 재개발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변화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포장에 둘러싸인 공사 현장이 거대한 선물처럼 보였다는 작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낯설과 기대를 파스텔톤 위주의 색감과 단순화 시킨 화면에 투영한다.

길가에 버려진 곰인형이 계기가 돼 탄생한 캐릭터로 현대사회의 관계상실과 고립 등을 이야기해온 윤석문은 우리 모두가 이 겨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 내리는 밤길을 걷는 인형들을 표현했다. 작가는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형들의 형상은 곧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말한다.

유화의 거친 질감과 특유의 서정성으로 감성 짙은 회화를 선보여온 이관수는 운주사의 겨울 풍경과 오래된 국밥집, 잔불이 꺼진 연탄 등을

그려냈다. 현대식 아파트를 원경으로 자리한 허름한 국밥집은 평평 내리는 함박눈과 램프 불빛으로 인해 포근한 서정을 자아낸다.

완성도 높은 기법으로 함축적인 풍경과 인물화를 그려온 조정태는 산사의 겨울과 해무가 내려앉은 겨울바다, 눈비가 내리는 겨울 숲을 담았다. 어스름 동이 트는 암자의 마당에는 쌓인 눈이 녹고 있다. 요사채로 스며드는 새벽빛과 녹아내리는 눈은 산사의 풍경에 고즈넉함을 더한다. 오래된 골목길 풍경을 담은 조현은 쌓인 눈에 비친 나무 그림자와 겨울 시래기, 눈 오는 날의 학동 풍경을 표현했다.

조각의 입체성과 회화의 평면성을 조화시켜 부조 형식의 회화를 선보여온 채경남은 첫눈의

설렘을 조각으로 풀어냈다. 첫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반려견과 함께 첫눈을 만끽하는 소녀, 첫눈 오는 날 눈발에 드러누워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아이까지 첫눈의 순수함과 동심을 따뜻한 질감의 테라코타 작품으로 표현했다.

진경산수의 정신과 미학에 천착, 우리 땅을 그려온 최진우는 화폭 안에 겨울 무등산을 담았다. 천왕봉과 안양산에서 본 무등산과 정상 저 아래의 구비구비 산세를 따뜻하게 풀어내어, 모산으로서의 무등의 숨결을 드러냈다.

한편, 전시 부대행사로 ‘행운의 연하장 보내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겨울기자

뜨끈한 화로에 우리네 정겨움 한가득

광주 비움박물관 겨울 기획전시

추운 날씨에 인 몸을 따뜻하게 덥혀줬던 화로의 모습을 감상하며 겨울나기를 준비해볼까.

광주 동구 비움박물관(대의동 2-1)은 내년 2월8일까지 박물관 4층 전시실에서 겨울 기획전시 ‘박물관의 겨울: 화로 이야기’전을 개최한다.

‘화로의 살가움’을 주제로 하는 이 전시는 가난했던 시절 길고 긴 추운 겨울에 함께 했던 화로를 재조명한다.

비움박물관의 ‘화로 이야기’ 전시에서는 무쇠화로, 철화로, 놋쇠화로, 양반화로, 곱돌화로 등 약 1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비움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의 겨울: 화로



이야기’ 전시를 통해 딱가루처럼 하얀 눈이 커져이 쌓이는 춥고도 긴 겨울, 그 시절 곱은 손을 살갑게 퍼주던 화로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 /정겨울기자



10대의 성장기 나누는 ‘움직이는 성장판’

21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10대들이 자기 성장을 확인하고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향후 진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이는 성장판’ 행사를 오는 21일 오후 1시 센터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선 디자인, 음악, 환경, 글쓰기 등,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분야를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시켜온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된다.

‘움직이는 성장판’은 세 개의 트랙으로 꾸려진다. 첫 번째 트랙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살디씨’가 ‘우리가 찾았길 발아(發芽)’라는 제목으로 1년

간 삶디자인센터를 겪고 알리고, 다른 지역의 또래를 찾아 여행했던 이야기를 한다. 열여섯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의 열 명이 나는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자신들의 기록으로 돌아본다.

두 번째 트랙은 ‘보이는 라디오’다. 삶디자인센터에서 꾸려진 모임인 한 무대에 올라 말을 주고받는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배움공방’에서 만나 학교밖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커피를 내리는 지구인 ‘킨디스’는 직접 만든 마실 거리를 선보인다.

마지막 트랙에서는 기타 연주를 매개로 2년간 이어져온 모임인 ‘유희자적’과 음악은 좋아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이들이 모인 ‘밴드, 해볼라고’가 연주를 한다. /정겨울기자

백수인 이사장, 아주지구한자문화국제학술대회 참여

20일 광둥외국어무역대 주최 학술대회
중국 대학원생 대상 한국문화 특강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백수인 이사장(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사진)이 오는 20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1회 아주지구한자문화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다.

중국 광둥외국어무역대학교(이하 광둥외무대)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6개국의 우수 학자들을 초대해 한자문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백 이사장은 한국문화학자 자격으로 광둥외무대학의 초청을 받아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방문한다.

또한 백 이사장은 학술대회를 마친 뒤엔 중국 대학 등에서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중국 현지 대학원생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 이사장은 19일부터 약 2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31일 귀국한다.

/정겨울기자



채경남 작 ‘첫눈이 소복소복’



윤석문 작 ‘사무치던 밤’



고마음 작 ‘공사중-특별한 준비’

광주 임동 성당 뒤 행복한 우리집 가구 2층

휴 · 돌침대 · 장농 · 소파 · 거실장 · 식탁 · 원목가구 · 사무용 · 업소용가구

HYUNDAI
LIVART

LIVART haum

LIVART Neoce
사무용 · 주방가구 · 불박이장

SIDIZ 사무용의자

대한 (주)대한OA퍼니처
OFFICE FURNITURE SYSTEM

EOS (주)이오스중역사무용

금실방 리퍼브 아울렛 전시장 1층

가구소품 · 선물 · 답례품

생활가전 · 생활용품 · 완구

GSB
ALL KINDS OF FURNITURE

금실방 062)525-2630